

이 책의 개요

* 본 페이지의 영어, 중국어(간체자), 한국어, 인도네시아어가 <https://www.bonjinsha.com/wp/edc>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떤 책이라 여기고 펼치셨나요? 일본어 교육의 독해와 회화를 배우는 교과서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일본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본 내의 사정 또는 외국 문화에 관한 책이라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책은 '민주적 시민성 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중급에서 상급 레벨의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수업에 사용
- (2) 다양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수업에서 사용
- (3)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육과 다문화 공생 교육 수업에 사용
- (4) 위의 방법들을 모두 결합시켜 종합적인 다언어 다문화 능력을 키우는 수업에 사용

이 책은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여 그 속에서 중요한 것 (= 민주적 시민성)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아래에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교사보다 학생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학습자 vs 교사라는 구분을 짓지 말고 읽어주세요. 학습자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배우며 성장하는 것처럼 교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찾아 외우는 책이 아닙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외의 나라나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겠지요. 각국의 사정과 문화, 가치관 등이 서로 달라 흥미와 관심이 있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답을 찾아 외우자'는 방식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만 이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마주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하나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교사와 많이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말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해 보세요.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능력을 습득하여 키울 것인가 (목표)

이 책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그 근거를 상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 근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일단 받아들이는 것, 그 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서로 대화를 해 나아갈 것, 대화 중에는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것은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맞추거나 양보도 하며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실천을 통해 배우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힘을 기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판적인 생각, 자신과 다른 것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깨닫도록 돕는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적’ 이란 상대를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잠시 멈춰서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 라거나 ‘사실일까?’ 라거나 ‘그 밖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 또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 보자’ 와 같이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사용 언어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쉬운 언어, 상대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고 싶은 언어 등 사람과 그 시간의 목적에 맞춰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활용해 대화에 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활동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iii 페이지의 (1) 부터 (4) 까지의 목적에 따라 사용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지식의 입력과 표현도 일본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을 것이고 정보는 각자가 쓰기 편한 언어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일본어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더욱 사고가 깊어지고 중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이를 향한 관용’, ‘비판적 자세’, ‘비판적 자세로 인한 여러 가지의 통찰’, ‘대화라는 민주적 수단’ 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이 책은 뒤에 나올 ‘이 책의 이념’ 에 적혀 있는 유럽 평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의 이념 및 그 이념을 자신의 배움으로 전환해 가는 시점과 자세, 그리고 그 이념을 실제로 구체화해서 습득하여 키워가기 위한 책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 부 구성 (+ 특설 웹 페이지) 으로 되어 있는 의미, 각 파트의 역할

이 책은 크게 4 개 (+ 특설 웹 페이지) 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과 사용법을 배운다

제 1 과에 들어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을 4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이념’ 입니다. 그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책의 사용법’ 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념과 사용법을 연결하는 6 가지 포인트’ 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념’ 과 ‘사용법’ 을 매개 중개하는 중요한 섹션입니다. 우선 ‘이념’, 그다음에 ‘6 가지 연결 포인트’, 그리고 ‘이 책의 사용법’ 의 순서로 읽고 마지막으로 ‘저자로부터의 메시지’ 를 읽으며 이 책의 목적과 사용법에 대해 대강이라도 스스로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 제 1 과 ~ 제 4 과 : 읽는 법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다음 파트는 제 1 과부터 제 4 과까지의 ‘읽는 법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파트입니다. 이것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스포츠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과 준비 운동과 같은 활동에 해당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준비 운동이 부족하면 실패하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읽는 법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파트를 먼저 읽고 그 속에서 학습 활동을 해 보세요. 학습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 4 과는 짧은 신문 기사를 소재로 제 1 과부터 제 3 과까지의 ‘읽는 법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를 응용해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 5 과 ~ 제 8 과 : 읽고 대화하는 데에 익숙해진다

3 번째 파트는 ‘다양한 소재를 읽고 읽는 법에 익숙해지기’ 를 위한 파트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기초

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지식과 준비 운동의 파트가 끝나면 제 5 과에서 제 8 과까지 진행해 주세요. 제 1 과에서 제 4 과까지 읽는 법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제 5 과 이후에는 이를 응용해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과가 있지만 내용의 소재가 동일한 것을 묶어서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제 5 과부터 순서대로 학습해도 자신의 흥미와 관심 위주로 읽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제 4 과 이후에 제 5 과 ~ 제 8 과가 아닌 제 9 과 이후부터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한과가 끝나기까지 점점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도 상담해서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제 9 과 ~ 제 20 과 : 보다 주체적으로 사회를 읽는다

4번째의 파트는 보다 길고 복잡한 내용을 읽고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가 연달아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더욱 본격적인 연습, 그리고 시합이나 대회에 나가는 느낌일까요? 성(), 차별, 배타적인 언어 행동, 국가, 전쟁, 환경, 지방자치 등과 같은

테마별로 여러 주제가 있고 ‘일상적 생활 영역’ 처럼 접할 기회가 많은 화제부터 ‘사회적인 영역’, ‘국가적인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 ‘사회적인 영역’이나 ‘국가적인 영역’의 화제라고 해서 모두의 일상 생활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국가적’인 것은 동시에 개인적인 ‘일상 생활’ 그 자체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적’, ‘국가적’ 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도 원하는 곳에서부터 학습해도 상관없지만 1 개의 테마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싶다면 관련된 테마를 몇 개씩 이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활동 예시 및 활동 자료 : 특설 웹 페이지

마지막 파트는 다양한 활동 예시 및 활동 자료입니다. 질적과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해 주세요. 과를 배우면서 함께 쓸 수도 있고 과가 끝난 후 복습이나 응용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를 워밍업처럼 쓰고 특설 웹 페이지에 있는 것을 메인 활동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만 이용해 자신만을 위한 수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설 웹 페이지의 URL 은 <https://www.bonjinsha.com/wp/edc>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 학기의 수업 횟수가 15 회인 곳이 많을 거라 생각하므로 제 1 과부터 제 4 과까지를 순서로 학습한 뒤 수업 횟수나 수강생이 흥미나 관심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의 과 안의 활동도 수업하는 반의 크기나 수강생의 준비 상황에 맞춰 선택과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껏 많이 보지 못한 책이라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념’ 이 있습니다.

viii 페이지에서는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이념’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